

군포교·교육 불사 ‘한마음’

무비스님·익명의 비구니 스님·진흥원

종단 목적사업·불우이웃 치료기금 보시

연말이 다가오면서 종단의 목적사업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가 잇따르고 있어 훈훈함을 전해주고 있다.

범여사에서 후학들을 위한 교육불사에 매진하고 있는 전 교육원장 무비스님은 지난 11월22일 대구 비슬산 대견사지를 답사한 자리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에게 2000만원을 전달했다. 노산에 건립중인 호국연무사의 원만한 불사를 기원하며 전해준 이 기금에 대해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교육과 포교불사에 여념이 없는 와중에도 기금을 조성해 주신데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말하고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군법당 기금으로 전달했다. 이에 군종교구장 자광스님은 “평생 교육에만 헌신해온 무비스님의 보시금은 많은 스님과 불자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라며 “호국연무사 불사를 원만히 이루라는 뜻대로 혼신의 힘을 기울여 불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익명의 한 비구니 스님이 동국대 경주병원에 1000만원을 쾌척했다. 동국대경주병원은 11월24일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비구니 스님이 병원 발전기금 1000만원을 최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익명의 스님은 이 자리에서 “평소 동국대경주병원에 신세를 많이 졌었다”며 “기회가 된다면 병원 발전을 위해 기부를 하고 싶었는데 이번이 실천하게 됐다. 어려운 환우의 치료 및 종립병원인 동국대경주병원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주병원 관계자는 “최근 우리 병원은 양한방 힐링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등 스님 및 불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스님의 소중한 뜻에 따라 기금을 불우한 환자나 가정형편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 돕는 등 동국대경주병원 발전을 위해 의미 있게 쓰겠다”고 말했다.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철)은

재단의 사업 방향인 ‘세상을 위한 불교’의 실현을 위해 대한불교조계종 군종교구(교구장 자광스님)에 군포교 지원금 1억원을 11월24일 전달했다. 4년 전부터 매년 군불교 진흥기금을 1억으로 책정해 지원해 오고 있는 진흥원은 올해 역시 장병 교육과 군법당 건립 등에 대한 지원금을 책정, 이날 다보빌딩 15층 진흥원 회의실에서 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전달식에서 김규철 이사장은 “올해 지원은 특히 격오지부대 포교, 장병 수계법회, 군승 연수와 교육비 연수 지원 등에 초점을 뒀다”며 “군승들과 불교계 모두 합심해 군 포교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군종교구장 자광스님은 답사에서 “불교진흥원이 군 불교 포교의 핵심으로 여건이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느낀다”며 군 포교에 대한 끊임없는 격려와 지원에 대해 치하했다.

김종찬 안직수 여현경 기자



전통문화 계승 작가
종단서도 적극 후원

불교미술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신종도’ (양선희 작) 등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이 지난 11월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데 이어 오는 15일까지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작품 전시회가 열린다. 개막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불교미술로서의 의미를 넘어서 한반도 전체의 문화와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라며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려는 작가들의 꾸준한 노력이 헛되지 않고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종단에서도 적극 후원하겠다”고 축하했다. ▶ 2774호 상보

김종찬 기자 kimj00@bulgyo.com

“가난에 꿈조차 꿀 수 없어요”

본지·아름다운동행 ‘선재의 선물 보내기’ 공동캠페인 ①

방임아동 실태와 문제점

사회양극화로 방임아동 급증

인터넷게임 비행에 빠지기

102만명 보살핌 ‘필요’

선재의 선물

1SET(3만원) 후원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하세요.

■ 농협 301-0077-7946-11
(아름다운동행)
■ 문의 (02)737-9595

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살핌이 필요한 방임아동 수는 국내 전체 아동인구의 15%가 넘는 102만여명에 달한다. 금융위기 이후 경제적·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방임아동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 2009년부터 선재의 선물 보내기 캠페인을 시작한 것은 이런 열악한 환경에 처한 어린이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 보호를 받지 못한 어린이들은 자연히 희망도 잃어버리는 현실이다. 선물상자에는 격려카드, 건강지킴이 영양제, 겨울나기 방한용품, 시계, 주니어김영사가 후원하는 양서 등이 담겨있다. 캠페인은 후원자가 3만원을 지원하면 아름다운동행이 2만원을 보태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동참하고 싶다면 아름다운동행에 문의하면 된다.

박찬정 아름다운동행 사무국장은 “보다 많은 곳에 전해주고 싶지만 손길이 필요로 하는 어린이에 비해 아직까지 참여도가 낮은 실정”며 “전국 10만 불자가 모두 캠페인에 참여한다면 방임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크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

홍다영 기자 hong12@bulgyo.com

“환희·감동의 포교 펼친다” 제6대 포교원 집행부 출범

고불법회 스마트폰 중계...6대 기조 발표

조계종 제6대 포교원(원장 지원스님) 집행부 출범을 기념한 고불법회가 지난 11월26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렸다. 포교원장 지원스님을 비롯한 포교원 집행부는 이 자리에서 “33대 종단 집행부의 ‘교육과 포교로 이룩하는 불교중흥’ 원력에 힘을 보태 ‘환희와 감동의 포교’를 펼치고자 한다”며 “많은 사회문제에 불교가 여러 가지 해답을 제시하고 부처님 자비가 넘쳐나는 불국토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날 법회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생중계돼 원거리 불자들도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종단의 SNS 포교사업의 첫 시작으로 주목을 받았다.

고불식에서는 6대 포교원 사업기조가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포교국장 남전스님은 “자성과 해신을 위한 5대 결사정신을 현장에서 구현하는 포교원이 될 것”이라며 △지속가능



제6대 포교원장 지원스님.

한 포교사업 계승발전 △선택과 집중의 포교사업 시행 등 주요사업 계획을 소개했다.

구체적인 사업들을 보면, 우선 지난 5대 집행부의 성과를 받아 안아 어린이청소년전법중심도량을 현재 118곳에서 800곳으로 확대하고, 분야별 지역별 전법단 지도자 인력을 1000여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신도품제제도를 통해 신도등록과 교육사업을 발전시키고, 종단이 추진하는 의례 한글화에 맞춰 한글 표준 법요식 발간도 진행한다.

선택과 집중할 사업으로는 미디어 등 문화포교와 수도권 신도시포교거점 확보 및 공감과 감동을 주는 프로그램 개발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스마트폰 대중화에 발 맞춰, 불특정 다수에게 불교에 대한 호감을 전할 수 있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방송매체 등과 적극 협의해 불교문화콘텐츠도 함께 개발해 나간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신도시포교거점을 확대해 병원, 대학, 이주민, 장애인 등 분야별 전법도량을 지정하고, 서울의 동서남북과 경기북부와 남부, 인천 지역에 문화센터를 설립해 포교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포교원장 지원스님은 “출재가 할 것 없이 불제자는 포교의 역군이 돼야 한다”며 “6대 포교원은 시대와 사회의 요청에 부응하는 종단을 만들고자 자성과 해신의 5대 결사를 포교현장에서 구현하는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서원했다.

여현경 기자 eonald@bulgyo.com

지면안내

해설사건 범인 잡히면

정신병자? 4면

김홍국 “배풀며 살면 즐거워요” 8면

종독미인 선구자

악기의 대가 반나타

기획대담/

월운스님-안상수 교수 9면



社告

라오스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합시다

사단법인 지구촌공생회와 불교신문사는 라오스 어린이들을 위해 비엔티엔시 싸이타니구 지역 ‘나을 옴마이 초등학교’ 건립을 위한 ‘COLA(Cool Learning Asia)’ 공동 캠페인을 펼칩니다. 1명의 불자는 한 구좌 1만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팔라 한 병은 학교건축과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라오스 어린이들이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불자 여러분의 따뜻한 정성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주 최 : 불교신문사, 사단법인 지구촌공생회
• 기 간 : 2011년 12월 31일까지
• 후원방법 : 1만원 • 목 표 액 : 5000만원
• 후원계좌 : 외환은행 630-007156-170 예금주 지구촌공생회
• 문 의 : 지구촌공생회(02)3409-0303 불교신문사(02)733-1604

승적말소 회복신고 시행 공고

승려법 제34조의8(승적말소 회복)과 승려분한신고시행령 제17조의 2(승적말소의 회복)에 의거 2010년 정기승려분한신고 미필로 인한 말소자로 호적에 변동이 없는 재적승려를 대상으로 승적말소 회복 신고를 다음과 같이 시행 공고합니다.

신고접수 개시일

불기2555(2011)년 12월 12일(월) 부터

신고대상

2010년 정기승려분한신고 미필로 인한 승적말소자로 호적에 변동이 없는 자

신고장소

제적교구본사, 직할교구는 직할교구사무처

신고서류

- 1) 분한신고서 1부(소정 양식)
- 2) 신상명세서 1부(소정 양식)
- 3)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 4) 제적등본 1부(※제적등본은 출가년도 이후 분가로 인한 독호적, 호주승계, 본적지 변경 등에 의해 호적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 전 호적(제적등본)을 추가 제출)
- 5) 주민등록등본 1부
- 6)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이력 포함
- 7) 주민등록증 복사본 1부-출가이후 교체된 증명사진 속복사사진인 경우 변경 제출
- 8) 현 승려증(본실인 경우 분실명기)
- 9) 구비서류 부작의 별도 증명사진 3매

- 구족계 수지자 (3cm×4cm, 종단대가사 / 장삼수한 사진)
- 사미, 사미니의 경우 (3cm×4cm, 종단만(가사) / 장삼 수한 사진)
- 10) 분한신고 제반 수수료 100,000원
- 11) 자필유언장 1부(인감 날인)
- 12) 인감증명서 1부
- 13) 위임장 1부(소정양식)
- 14) 95년 이후 출가자로 구족계 미수지자의 경우 기본교육기관 재학증명서 1부

외국인 및 시민권 취득 승려 신고서류

- 1) 분한신고서 양식 1부(소정 양식)
- 2) 신상명세서 양식 1부(소정 양식)
- 3)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1부(기간 만료 전)
- 4) 사찰 거주 확인서 1부(소정 양식)
- 5) 구비서류 부작 및 별도 증명사진 3매(종단대가사)
 - 구족계 수지자(3cm×4cm, 종단대가사 / 장삼수한 사진)
 - 사미, 사미니의 경우(3cm×4cm, 종단만(가사) / 장삼수한 사진)
- 6) 현 승려증

- 7) 자필유언장 1부(지장날인 및 서명)
- 8) 분한신고 제반 수수료 100,000원

신고방법 및 주의사항

- 1) 사미, 사미니의 경우 기본교육기관을 2년 내에 입학하지 않을 경우 종단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원 발급이 보류됩니다.
- 2) 신고서류 중 3) ~ 6), 12)번의 경우 구청, 동사무소, 면사무소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 3) 신고서류 중 총무부에서 미비된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원 총무부에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위임장을 필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해외 거주하는 승려 및 영주권자는 국내거주승려 신고서류와 동일합니다.
- 5) 외국인 및 시민권 취득자의 경우 외국인 신고서류와 동일합니다.
- 6) 신고서류는 모두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문의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45 총무원 총무부 사찰교무팀 ☎ 02)2011-1703~1705